

## 101. 예수님께서 정직함에 대해 말씀하세요.

2015.07.2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정직함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가식, 속임수 또는 위선이 없는 자질.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솔직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그릇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는 정직함이야. 진실함에는 진동이 있어. '진실함은 그 자체로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처럼 그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강력해. 너희들이 진실로 말할때, 그 진동은 영혼의 마음 깊숙히 파고들어. 그 진실은 그곳에 머물며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나는 나의 모든 그릇들이 가식없이 정직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대가가 커. 어린시절부터 너희들은 강하고 완벽하며 흠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너희들의 약점을 숨기는 것을 배웠어. 이것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와 가식의 벽을 쌓는 효과를 가져. 이것은 지구에서의 나의 왕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회적 생존구조야.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 결점이 있는 인간이고, 너희들이 그 결점들을 숨길 때 너희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결함들이 드러나면 그 결함들을 개선해야해. 그 결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결점들을 드러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해.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가 없다면 너희들은 뚫을 수 없고, 숨겨져 있고, 어둡고, 부끄럽고, 둔하고 폐쇄된 섬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사회의 상태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 천국에서는 모든 생각들이 모두에게 드러나 있고 보여. 왜냐하면 연민이 풍성하고, 사랑은 부족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가기 때문이야.

(클레어) 하지만 주님, 천국에서 저희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아니야. 천국에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깊이와 이해를 키워야 하는 영역이 있을 거야. 천국에서 너희들이 가지지 않는 것은 죄야.

(클레어) 주님,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서 저희가 완전하고, 온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온 땅을 치유하는 생명의 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결점들이 있을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 내 사랑아, 천국에서는 모든 지식들, 심지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혜는 획득하는 자질이야.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지혜는 이 지구에서 매우 부족해. 각각의 영혼은 무한하게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역들은 탐구를 통해 충충이 드러나야해. 탐구는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키울때 발생해. 그리고 천국에서 이것은 항상 사랑과 치유와 관련이 있어. 천국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져.

(클레어) 기계학, 건축, 에너지 등등과 같은 것들은요?

(예수님) 그래, 그러한 것들조차도 삶을 개선하고, 돕고, 풍요롭게 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 이것들은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들이야.

(클레어)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때 저는 성경구절이 생각났어요. 예언, 지식, 모든 지혜는 멈출 것이지만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구절이요.

(예수님) 사랑은 귀중한 입자야.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랑에 종속되. 천국에서의 동기 그리고 천국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사랑이야. 천국에서 사랑이 근원이 아닌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이것은 또한 입자 물리학자들이 분리시켜 수집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들에게 나는 말해. "사랑은 수집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수집할 수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한다는 것을 이해했었고 그들이 결국 이것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였어.

정직함과, 투명함 그리고 취약성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은 진실함이 안전함이 되어지는 개방성이고, 행동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거기에는 고립보다는 이해와 치유, 그리고 연대감이 있어.

사람들을 광기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립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 수 있어. 그들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다룰 수 없을 때 그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세상에서 관련성을 잃어. 그들은 이중 생활을 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보여주는 삶과 실제로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으로. 이 둘이 서로 화합할때 그들은 온전해지고 치유되어져. 하지만 그 둘이 분리되어져 있는한 성장하는데 있어서 질병과 걸림돌의 요소가 되어져. 자신의 어두운면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덮으면 성장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처해야하지만 또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해. 이 이중생활은 끝없이 지치게해.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비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워.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나의 목표는 영혼들을 그들의 결점들과 고군분투할 수 있고 비난 없이 그 결점들에 대해 다뤄도 괜찮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 서로를 돌보고 강화시켜. 짓밟힌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영혼들의 친절함을 보는 것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국에서도 그렇듯이 지구에서도 이 사랑이 실천되는 모습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천국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너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모두가 와서 위로해줘.

(클레어) 네, 저는 천국에서 그 경험을 하였어요. 저는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1800년대의 아주 거룩한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저희가 모두 테이블에 앉아 있을때 제가 매우 감명깊게 읽었던 글을 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테이블의 앞쪽에 앉아 예수님과 마주하였고 저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있었어요. 저는 질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식사를 멈췄어요. 제가 질투하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와서 저를 끌어안았고, 모두가 위로해주면서 그들 모두 지구의 삶에서 질투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러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예수님) 그래, 그것이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질투는 끔찍하게 추한 감정이고 많은 죄들의 근원이야. 아무도 질투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너를 비난하기보다 그 죄에 대한 그들자신의 고군분투를 고백하고 너를 위로하기 위해 모두가 너의 옆으로 갔어.

만약 모두가 그들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치유의 기도를 받는다면 이 지구에는 병이 없을 거야. 이것이 내가 지구의 생명을 설계한 방법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부심, 자만심, 욕심 때문에 이것을 덮고 은밀한 죄의 삶을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만약 너희들이 휴거되어지고싶다면 너희들은 은밀한 죄의 삶을 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할 거야. 너희들이 변화에 전념하는한 나는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너희들이 그 결점을 완전히 정복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변화에 전념한다면. 하지만 은밀한 죄의 삶을 키우면서 겉으로는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휴거후에 남겨놓을 거야.

죄가 얽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사슬이 갑자기 끊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있는 집으로 자유롭게 날아올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들은 너희들을 둘러싸고 가뒤편에 죄들에서 자유로워질 거야. 너희들이 수십년동안 싸워온 죄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될 거야. 어떠한 어둠도 너희들에게 불거나 너희들을 억제할 수 없을 거야. 눈 깜짝할사이에 변형되는

은혜가 너희들을 지구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만들 거야. 이것은 나의 신부들에게 주는 나의 멋진 선물이 될 거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는 지금 너희들이 이 생각들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래.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숨겨진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 이 죄들을 나에게 가져와서 열린 마음으로 고백하고, 너희들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 어두운 곳들에 빛을 비추게 해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은혜가 들어와 완전하게 너희들을 변형시킬 수 있도록 그 창문들을 열어라. 그러면 그 순간에 너희들이 나에게로 날아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진정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되어질 거야.

악마가 숨을 수 있는 귀퉁이 구석들이 없고 너희들을 대적하기위해 사용하는 갈고리가 없는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 너희들의 투명성과 나의 구원이 만났어. 나는 너희들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었던 너희들의 구덩이, 절망에서 끌어낼 거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희들만이 유일한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방해하고 자유롭게 걷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그 속박과 갈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헌신을 하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사랑의 안전한 안식처가 열리는 오늘 너희들을 축복해.